사계절 즐겁다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우천시 9홀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8 "우리도 함께 뛴다"

'건강한 삶, 더불어 사는 공동체' 꿈꾸며

광주 서정치과

광주 서정치과 직원들이 '건강한 삶,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목표로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서정치과의 개원 이념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다. 서정 가족은 개원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1990년 개원 이후 독거노인 방문돕기, 광주 공원 무료 진료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서정치과 직원들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꿈꾸며 3·1 마라톤 대회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작년 이어 전직원 총출동

이들은 3·1 마라톤 대회에도 적극적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이 밑받침이 되야 하므로 이들은 마라톤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50여명의 직원이 총 출동해 건강한 삶을 위한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로 3·1 마라톤 대회 4회 참가를 맞게 되면서 직원들의 경쟁도 뜨거워졌다.

김재곤(47) 원장은 "그 동안 대회 참가에 의미를 두었지만 이번만큼은 좋은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등산을 하고 있어 역대 최고의 기록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곤 원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3·1 마라톤과의 인연을 맺었던 직원들은 동호회를 결성할 정도로 마라톤 마니아가 됐다. 함께 운동을 하면서 건강은 물론 직장의 화합과 결속력도 좋아지는 등 직원들은 마라톤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홍경모(55)이사는 '50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 걷기를 통해 건강을 지키며 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양인호 국장은 '몸짱'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주 2회 이상 10㎞를 달리며, 예전 몸매와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

원내 최고 스포츠 맨인 이정훈 치기공사 선생도 스타탄생을 예고 하고 있다. 조기축구회 활동과 싸이클을 통해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 원내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등산·수영으로 체력 다져

여성 직원들도 대회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임산부인 송미옥 실장은 전력 질주를 할 순 없지만, 건강한 출산을 위해 서정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걷기로 했다.

수영을 통해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쌓은 김정숙 팀장은 마라톤에 도전장을 내고 '건강미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루키 안치홍 "신인왕은 내 꺼야"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루키 안치홍을 주목하라.'

KIA 타이거즈 전지훈련의 막둥이는 최고참 이종범과 무려 20살 차이가 나는 1990년생 고졸 신인 내야수 안치홍이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투수 정성철, 내야수 손정훈 그리고 안치홍 등 모두 3명의 신인이 참여했었다. 하지만 정성철은 어깨 통증으로, 손정훈은 허벅지 통증으로 각각 귀국길에 오르면서 안치홍 홀로 일본에 남겨졌다.

서울고를 졸업한 안치홍은 고교 최고의 유격수로 주목받았던 선수. 광주지역 야구팬들에게는 2007년 광주일고와 서울고와의 대통령배 결승에서 정찬헌(LG)으로 부터 2개의 홈런을 때려낸 '당돌한' 2학년 학생으로 유명하다.

고교 야구를 평정했던 선수지만 프로 무대 도전이 쉽지만은 않다.

안치홍은 "고등학교 때도 해외 전지훈련을 다니기도 했지만 프로의 전지훈련은 차원이 다르다. 눈만 뜨면 훈련이라서 정말 힘들다"면서도 "체계적인 훈련에서 자신감도 얻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진 기분이다"고 전지훈련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하늘 같은 선배들 틈에서 힘든 훈련을 소화하는게 힘들 것 같지만 안치홍은 늘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다. 앞선 4번의 연습경기에서는 3루수로 선발 출전해 젊은 패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4경기 타율은 0.286, 수비에서도 미숙한

고교 최고 유격수 주목 받아

휴식날도 타격 연습 구슬땀

부분이 눈에 띈다.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타격 때문에 툭하면 방망이를 부러뜨려 선배들에게 "또 그랬냐?"라며 핀잔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묵묵히 힘든 훈련을 견뎌내는 막내가 선배들은 기특하다.

'기특한 후배'를 위해 최희섭과 나지완은 '신인왕 키우기' 도우미로 나섰다. 지난 12월 포항에서 손정훈, 안치홍과 함께 자체 캠프를 꾸리기도 했던 최희섭과 나지완은 후배 기살리기를 위해 전지훈련에서도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선수단 휴식날이었던 20일에도 연습장에 나가 함께 타격연습을 할 정도다.

인복 많은 안치홍의 올 시즌 목표는 신인왕이다. 그는 "내야 어느 포지션이나 다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 24년 만의 KIA 타이거즈 신인왕 타이틀을 반드시 거머쥐겠다."고 다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촉

▲윤재희·이삼순씨 차남 철호군 신용근·서기자씨 장녀 숙재양=2월21일(토) 낮 12시 웨딩의 전당 3층(노블레스홀).

▲차이선(여수 무선초등학교 교사)·이희순씨 장남 대길(삼성전자반도체총괄 책임연구원)군 이경진·김정옥씨 장녀 승아(SK텔레콤 기획실 대리)양=2월21일(토) 오후 3시30분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본관 3층 예식홀.

▲이광명씨 차남 승현군 김상식(前 광주시청 회계과)씨 장녀 주형양=2월21일(토) 오전 1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김진보·이영희씨 장남 재연군 강돈희·김순옥씨 장녀 지연양=2월21일(토) 낮12시 에벌루션 웨딩컨벤션 1층(세이지홀).

▲유동수(신안군 부군수)·김광자씨 장남 영군 김혜순(유덕초교교사)씨 딸 진영양=2월21일(토) 낮 12시30분 예술의 전당(토파즈홀).

부음

▲이창종씨 별세 일환·기환·춘화씨 부친상=발인 22일(일) 그린장례식장 3분향소. 062-250-4403.

▲ 김복환씨 별세 재준·재근·순희씨 부친상=발인 22일(일)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조순복씨 별세 손영원·영윤·미나·유미씨 모친상=발인 22일(일)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KBO 총재에 유영구씨 선출

유영구(63)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20일 한국야구위원회(KBO) 17대 총재로 공식 선출됐다.

프로야구 8개 구단 구단주(대행 포함)는 이날 서면을 통해 만장일치로 유 이사장의 총재 선출을 의결했다고 KBO가 밝혔다.

KBO는 이에 따라 오늘 감독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영구 총재 선임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1한국 프로야구를 이끌게 된 유 신임 총재는 1990년 LG 트윈스 프로야구단 고문과 2003년 KBO 고문, 그리고 2003년부터는 서울돔구장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야구와 인연을 맺어오고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PGA 1R 3위

한국남자골프의 간판 최경주(39·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트러스트오픈에서 최근 부진을 날려버리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최경주는 20일(이하 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비에라 골프장(파71·7천298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6개를 잡아냈다. 5언더파 66타를 치며 공동 3위로 뛰어오른 최경주는 시즌 첫 우승을 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